

대졸여성 채용때 외모 중시

12.19

입사시험 성적 뛰어나도 정당한 평가 못받아

이대 여성연구소 조사

대졸 여성이 기업체의 입사시험에서 남성보다 성적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실력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용과정에서 능력과 자질말고도 외모가 중요한 입사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소장 이배용)가 최근 기업체 인사담당자 20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6명이 대졸 여성들의 입사시험 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고, 절반 이상이 여성의 경우 능력과 자질말고도 외모가 중요한 입사 기준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은 대졸 여성들이 취업 의지가 매우 강하고 입사시험 준비가 잘 돼 있는 반면 일의 추진력이나 적극성·통솔력·평생직에 대한 의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은 구체적 업무에서, 남성은 전반적 업

무에서 우월하나 관리능력이나 참여의식 결여 등이 여성의 업무능력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들은 또 여성이 결혼하면 집안일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시간외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신을 하면 고객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기혼 여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들 중 대부분이 여성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4년제 대졸 여성보다는 상고나 전문대 출신을 뽑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놓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이화여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대졸 여성의 취업 실태와 대책'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체들의 대졸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 없애기 △정부의 여성문제 전담부서 설치·운영 △여성들의 철저한 취업준비와 평생직업의식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